

대학생의 친밀-실리 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에 관한 연구

조 속 자 방 회 정 조 혜 자 김 현 정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이화여대 심리학과 이화여대 사회과학연구소

인간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친밀-실리관계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IAT)와 관계적 자아와 관련된 명시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암묵적 검사의 반응시간에서 조건(3회기 vs. 5회기)에 따른 주효과가 편안차원과 진실차원 모두에서 나타났다. 즉 친밀관계는 편안 및 진실 특성과 암묵적 연합을 이루고, 실리관계는 불편 및 거짓 특성과 암묵적 연합을 이루었다. 명시적 검사(RISC, SOC)와 암묵적 검사의 상관은 낮았으며, 이는 두 검사에 요구되는 의식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하며 명시적 검사의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명시적 검사의 고저집단에 따른 반응의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IAT 검사 반응에서의 성차는 뚜렷하지 않았다. 결과는 한국 대학생의 인간관계 발달 맥락과 암묵적 검사의 유용성 차원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주요어 : 친밀관계, 실리관계, 암묵적 표상, IAT, 명시적 검사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인간관계는 필연적인 삶의 조건이며, 맥락이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맺는 인간관계의 내용은 다양하다. 학자들은 인간관계를 일차적 vs. 이차적 인간관계, 수직적 vs. 수평적 인간관계, 애정중심적 vs. 업무중심적 인간관계, 공유적 vs. 교환적 인간관계 등 뚜렷하게 대응되는 관계로 이분하기도 하고, 공동체적 공

유(communal sharing), 권위적 서열(authority ranking), 동등성 맞추기(equality matching), 시장 가격 원칙(market pricing) 등 두드러진 인간관계를 나열하기도 한다(권석만, 2004; Clark, 1985; Fiske, 1991).

발달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관계 유형은 애정중심적 친밀관계이다. 전통적으로 애착, 돌봄, 우정, 사랑 등의 주제로 부모-자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FRF-2004-074-HS0005).

교신저자 : 방회정, E-mail: hjbang@ewha.ac.kr

녀관계, 또래관계, 이성관계 등이 많이 연구되었다 (Bornstein & Lamb, 1999; Harter, 1998; 1999). 애정중심적 친밀관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느낌, 호감, 매력 등에 의해 관계가 형성되며 상대방과 사랑이나 우정을 주고받는 것이 관계유지에 중요한 요인이며 목적이 된다. 반면, 업무중심의 실리적 관계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와 함께 하는 작업이나 업무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인간관계라는 점에서 친밀관계와 확연히 구별된다. 실리관계에서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과 성과가 중요한 목적이 된다(권석만, 2004).

전통적으로 인간관계는 개인적 자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아개념, 자존감, 자기효율성 등 개인적 자아의 내용이 인간관계와 관련지어 많이 언급되고 있다(Harter, 1998; 1999; Rubin et al. 1998; Caspi, 1998).

그러나 최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의 개인적 자아의 내용에는 이미 상당 부분 사회적 관계를 포괄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관계적 자아가 인간관계의 매우 핵심적인 영역임이 강조되고 있다. Sedikides 와 Brewer (2001)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는 유의미한 타인과의 동화에서 비롯되며, 관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지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관계적 자아는 형태상으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연인관계, 사제 관계, 실리 관계 등 개인이 맺는 모든 유대관계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최근 인간관계를 관계적 자아의 측면에서 고찰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관계적 자아를 관계적 맥락과 관련짓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Hstings & James, 2001; McConnell et

al. 2005; Baldwin, 1992).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관계적 자아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우선 개념이 광범위하고 형성적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자아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이 갖는 제약 때문이다.

기존의 자아 연구는 대부분 명시적 검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개인은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여겨지는 곳에 표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즉 개인은 의식적으로 자아를 점검하고 이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 규범적 태도 등으로 실제적 자아의 모습은 감춰지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었다(Schlenker, 2003; Paulhus et al., 1989).

자아의 모습이 왜곡될 가능성은 사회적 맥락이 강조되는 관계적 자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Schlenker(2003)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하여 자기 제시를 하며, 그 결과 인간관계의 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성인 뿐 아니라 6세 아동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이나 심리적 상태를 항상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한다.

자기 제시는 처음에는 다소 의식적인 주의와 통제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 무의 식적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Paulhus 등(1989)에 따르면 개인은 공적 상황이나 인터뷰 상황 등 맥락에 따라 자동적으로 자신의 바람직한 특성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자기를 제시하기도 한다.

Bandura(1996)는 상황에 맞추어 자기를 조절하는데 자기-효능성(self efficacy) 신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개인은 인간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자신을 조절하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유능한지에 대한 자기표상이 자기 조절적인 행동을 야기한다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명시적 검사들을 이용하여 자아를 측정하고 이를 연구에 이용하였다. 예를 들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검사는 오래 전부터 보편적으로 쓰이는 명시적 자아검사 중의 하나이다. 또한 최근 관계적 자아연구의 증가와 더불어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는 관계적 자아해석(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 RISC) 척도는 Cross 등(2000)이 관계적 자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명시적 검사이다. Paulhus(1983)가 개발한 통제감 척도(Spheres of Control : SOC)는 다차원 척도로서 개인적 효능감, 대인통제를 측정하는 명시적 검사이다.

자아와 관련된 명시적 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각(awareness)의 정도이다. 명시적 검사는 자각의 정도가 높아서 개인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 자기 제시, 규범적 태도, 고정관념 등의 영향으로 자아는 왜곡되고 감추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의식적으로 드러난 자아의 내용만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Fazio(1986)는 명시적 측정은 암묵적 요소와 자동적 활성화 정도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갖고 태도나 신념 등을 밝히고 이를 행동과 관련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관계적이고 다면적인 자아의 특성이나 자기 일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친밀한 타인과 있을 때의 자신의 특성들을 각각 평정하는 기법이 사용되기도 한다(Rosenberg, 1997; Suh, 2002). 그러나 이 방법 역시 구체적이고 친밀한 타인과의 관계들을 개별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복잡한 과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관계 유형에 따르는 포괄적인 반응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이 자아와 관련된 명시적 검사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의식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 IAT)는 자아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IAT 검사는 컴퓨터상에서 이분법적인 범주와 속성들을 빠른 속도로 분류하는 과제로서 의식적인 자기 통제를 할 수 없도록 빠른 자극제시와 빠른 반응을 기반으로 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는 자존감이거나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Greenwald et al., 2000; 2002), 특정 유형의 관계적 자아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틀로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해 편견 유무를 묻는 명시적 검사에서 개인들은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오랫동안 학습된 규범적 태도, 혹은 편견 없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실제의 자신과 상관없이 편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태도나 가치가 실재를 얼마나 반영하는가?

암묵적 검사들은 기존의 의식적이고 명시적인 검사가 밝혀내지 못했던 태도와 행동간의 관련성을 밝혀 왔다. 암묵적 검사에서는 사회적 지식구조도 일반지식구조처럼 개념과 속성들이 연합강도를 가진 연합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Higgins(1996)는 자기 도식이 연합망 체계로 구조화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적합한 자기 도식의 일부가 활성화되어 확산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묵적인 측정을 통해 밝혔다. Fazio(1986) 역시 암묵적 검사를 통해 사회적 태도가 연합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상에 해당하는 마디와 대상의 평가를 대표하는 마디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에 개발된 IAT는 이분법적인 사회의 범주와 속성들을 빠른 속도로 분류하게 함으로써 범주와 속성이 어떤 식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밝혀낸다.

Greenwald 등(2000)은 IAT는 암묵적 도구이므로,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태도와 같이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도 자신을 인위적으로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Greenwald 등(2003)은 IAT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다양한 연합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웹 방문자에게 IAT 검사를 통해 연령, 성-과학, 인종, 2000 선거에 대한 내재적 태도 및 고정관념을 암묵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암묵적 검사를 통해 측정된 내용을 문장으로 직접 묻는 명시적 직접질문도 함께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IAT검사에서 사람들은 늙음에 비해 젊음에 강한 내면적 선호도를 보였으며, 성-과학 IAT검사에서는 남성-과학, 여성-예술에 강한 연합을 나타냈다. 또한 인종(흑-백) IAT 검사에서는 흑인보다 백인에 대한 내면적 선호도를 드러냈다. 명시적 직접질문과 암묵적 검사의 상관은 연령, 성-과학, 인종, 2000 선거에 대해 각각 .11, .20, .29, .69였다.

Kim(2001)은 IAT 검사에서의 자발적인 통

제에 관한 연구에서 피험자를 faking 처치 집단과 non-faking 처치 집단으로 나누어 두 쌍의 대상(꽃 vs. 곤충, 악기 vs. 무기)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통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즉 꽃이나 악기에 대한 태도의 호의성을 의도적으로 억누르면서 자동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 또한 고의적으로 반응을 느리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인종(흑인 vs. 백인)에 대해 faking 지시를 주었으나 피험자들은 통제 전략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IAT 검사가 의식적 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자아의 내용을 파악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IAT 검사를 통하여 친밀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실리관계의 암묵적 반응과 이를 관계적 자아와 관련된 명시적 검사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은 암묵적 반응과 명시적 반응간의 관련성을 통해 명시적 검사의 문제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

기존의 관점에 따르면, 관계적 자아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개인은 인간관계에서 보다 적응적인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Cross 등(2000)은 관계적 자아해석척도(RISC)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하고, 친한 파트너와 더 자주 다양한 만남을 추구하며,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인적 정보를 더 많이 드러낸다고 했다. 또한 친밀한 관계를 자아에 통합하는 경향이 있으며, 친밀한 관계에 더 많이 몰두한다고 밝혔다. 또한 RISC 점수가 높은 개인에게 친밀한 관계는 자기표현, 자기 고양

을 경험하는데 필수적이므로, 친밀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발달, 유지, 고양시키기 위해 동기화된다고 주장했다.

명시적 검사의 개인 특성변인이 관계지향성과 관련된다는 것을 암묵적 검사를 통해 알아본 연구들도 있다. 개인과 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을 알아본 Cross 등(2002)의 연구에서는 관계를 쾌와 연합시키고, 개인을 불쾌와 연합하는 경향이 RISC 점수가 높은 집단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방희정 등(2005)의 결과에서도 RISC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남녀는 개인과 관계에 대한 평가차원, 파워차원, 활동성차원, 성별차원의 반응시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자아와 관련된 명시적 검사에 의해서 밝혀진 개인 특성변인이 관계지향성과 관련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들이다.

Cross 등(2000)의 논의는 명시적 검사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암묵적 검사와 명시적 검사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Cross 등(2002)의 연구와 방희정 등(2005)연구는 RISC 검사와 관계 및 개인에 대한 암묵적 표상을 잴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연구는 관계지향성과 개인지향성을 관계적 자아와 관련시켰다. 결과에 따르면 암묵적 반응과 명시적 반응은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즉 관계적 자아 검사 점수가 높은 사람은 관계에 대한 표상은 관계적 점수가 낮은 사람과 차이를 보여 관계를 긍정적 가치와 연합시켰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결과는 구체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날 것인가?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친밀관계, 실리관계 등 구체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인간관계에서의 성차에 관한 논의는 특히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남녀 특성과 관련된 성 고정관념은 남성은 도구적이고 행위주도성을 가진다고 보고, 여성은 표현적이고 친교성을 가진다고 보았다(Bakan, 1966; Kaplan & Sedney, 1989). 따라서 여성과 남성은 인간관계 양식이 다를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다. 특히 여성을 관계지향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은 관점이 우세하다(Gilligan, 1982; Cross, 2000).

그러나 Baumeister 등(1997)은 인간관계에서의 성차를 비판하면서, 남성 역시 관계를 추구하고 상호의존적이지만 단지 관계의 영역이 다르다는 영역차이(different sphere)이론을 제안하였다. 즉 남성과 여성은 모두 사회에서 수용되는 방식으로 관계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지만 여성은 좀 더 친밀하고 좁은 관계를 추구하고 남성은 폭넓고 확장된 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성고정관념은 성차를 인정하고 영역차이 이론은 성차를 거부한다. 과연 암묵적 검사에서는 성차와 관련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주변인과의 친밀한 관계와 다양한 실리관계에 대한 표상에서 성차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 시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시기가 갖는 발달적 의미 때문이다. 발달시기를 중심으로 보면 생의 초기는 애정중심적 친밀관계 특히 부모-자녀관계가 주종을 이루고 점차 또래관계, 집단관계, 이성관계가

추가된다. 반면, 성인기는 초기의 애정중심적 친밀관계 외에 관계의 목적이 뚜렷한 업무중심적 실리관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성인기 인간관계 연구는 주로 애정관계 및 직장에서의 대인관계가 주종을 이룬다(Collins & Madsen, 2002; Harter, 1998, 1999; Erikson, 1968 ; Bornstein & Lamb, 1999.). 대학생 시기는 이런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시점이다.

대학생 시기는 기존 가족관계의 확대 뿐 아니라 새롭게 맺는 이성관계가 포함되어, Erikson(1968)의 친밀감 형성이 발달과제가 되는 시기이다. 또한 이전 시기보다 여유가 생겨 친밀감 표현으로서의 Aron 등 (1992)이 제안한 친밀한 감정(Feeling Close)과 친밀한 행동(Behaving Close) 모두 증가하여 이미 형성되어 있는 애정중심적인 친밀 관계가 증가한다.

대학생의 확장된 인간관계의 내용에는 친밀관계 뿐 아니라 업무중심의 실리관계가 포함된다. 요즘의 대학생에게 학점관리, 경력관리, 인맥관리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일반성인의 실리관계와는 구별되는 부분이다. 대학생은 실리관계를 통해 주고 받음이 존재하는 교환적 인간관계, 서열과 권위가 중시되는 인간관계, 도구적 인간관계 등을 경험한다. 정보 공유와 취업 준비를 위해 경쟁관계의 친구와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위해 사람을 만나거나, 행정적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학과 사무실을 찾거나, 추천서를 받기 위해 교수를 찾아가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 병원이나 은행 등을 찾으며 여러 사람과 실리 관계를 맺고 있다. 매력이나 호감 없이 실리적 목적만 있는 관계의 범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대

학생 시기는 바로 그 시작점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친밀관계와 실리관계가 시작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분법적 범주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알아보는 IAT 검사를 실시하여 친밀관계와 실리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의 내용이 편안,차원과 진실차원에서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IAT 검사를 통해 드러난 연합의 강도가 관계적 자아를 재는 명시적 검사 점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서 인간관계 연구에 있어서 암묵적 검사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친밀-편안/실리-불편의 연합 강도는 친밀-불편/실리-편안의 연합 강도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명시적 검사가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친밀-편안/실리-불편 연합강도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3. 친밀-진실/실리-거짓의 연합강도는 친밀-거짓/실리-진실의 연합강도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명시적 검사에서 점수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친밀-진실/실리-거짓의 연합강도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5. 친밀 및 실리 대상에 대한 암묵적 검사는 명시적 검사 및 직접질문과 관련이 없을 것이다.

방 법

은 .78이었다.

연구대상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20명(남 112 명, 여 108 명)을 대상으로 IAT 검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 개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RISC, SOC 개인효율 및 SOC 대인통제에서 상 하 25%에 속하는 피험자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검사에서 유효하지 않은 반응을 제외시켜 결과 분석 인원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측정도구 :

(1) 관계적 자아와 관련된 명시적 검사 :

자아와 관련된 명시적 검사로 두 개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ss 등(2000)이 제작한 관계적 자아해석(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 RISC) 검사 11문항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Paulhus가 제작한 통제감 척도(Spheres of Control : SOC)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통제의 소재를 측정하는 다차원 척도로서 개인적 효능감, 대인통제, 사회-정치적 통제의 세 국면을 재는 검사이다(Paulhus, 1983).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으로서의 통제감을 명시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세 하위척도 중 개인효율과 대인통제의 두 하위척도 각 10문항씩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실시된 RISC에 대한 신뢰도 cronbach-alpha 값은 .75이었으며, SOC 개인효율성의 신뢰도는 .67, SOC 대인통제감의 cronbach-alpha 값

(2) 암묵적 연합검사(IAT) :

본 연구를 위하여 두 가지 유형의 암묵적 태도검사가 제작되었다. 각 검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범주명과 그 특성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선택되었다. 이를 위한 예비 연구로서 대학생들이 맺고 있는 실제 대인 관계에서 친밀-실리적 대상을 알아보았다. 110명의 대학생들에게 실제로 자신이 맺고 있거나 혹은 가능한 모든 관계를 떠올리면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되는 사람, 실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기술하게 하였다. 그 결과, 반응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 대상들에 대해, 대학원생과 발달심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본 연구팀이 범주 포함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친밀-실리 관계라는 두 축에 대해 각 10 개씩, 총 20 개의 대상이 선정되었다. 같은 과정을 통해 진실, 거짓, 편안, 불편과 관련된 행동사도 각 10개씩 40개가 선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IAT 검사 1에서는 ‘친밀’, ‘실리’의 범주와 ‘진실’, ‘거짓’ 범주가 사용되었고, IAT 검사 2에서는 ‘친밀’, ‘실리’ 범주와 ‘편안’, ‘불편’ 범주가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IAT 검사에서 사용된 범주와 단어는 다음과 같다.

<검사 1, 검사 2에서 사용된 친밀-실리 범주의 단어>

친밀 : 단짝친구, 어릴적 친구, 자매, 이모, 애인, 부모, 형제, 배우자, 고모, 할머니
 실리 : 직장동료, 외관원, 고객, 보험설계사, 동업자, 수업조교, 행정직원, 의사, 팀원, 영업사원

<검사 1: 편안차원>

편안 : 푸근한, 따뜻한, 부담없는, 자연스런, 여유있는, 부드러운, 느긋한, 허물없는, 격식없는, 꾸밈없는

불편 : 부담스러운, 거북한, 긴장되는, 어색한, 의식적인, 부자연스러운, 딱딱한, 억지스런, 조심스런, 신경쓰이는

<검사 2: 진실차원>

진실 : 진짜의,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참된, 꾸밈없는, 본심의, 진심의, 드러내는, 마음 속의, 진솔한

거짓 : 가짜의, 내숭떠는, 가식적인, 속이는, ~척하는, 꾸미는, 감추는, 숨기는, 위선적인, 가면 쓴

IAT 암묵적 검사 후 각 IAT 검사에서 재고 있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묻는 직접질문을 만들어 IAT 암묵적 검사와 직접질문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직접질문에서 피험자는 친밀-실리 대상에 대한 편안차원과 진실차원의 문항들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Likert식 6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절차:

피험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두 가지 IAT 검사에 참여하였다. IAT 검사는 Greenwald의 방법을 따라 시행되었다. IAT 검사 1과 IAT 검사 2는 자극 단어만 다를 뿐 절차는 동일하다. 여기서는 검사 1만을 설명하기로 한다. IAT는 5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에서 피험자는 컴퓨터 화면 중간에 나타나는 자극이 두 개의 범주(예: ‘친밀’과 ‘실리’ vs. ‘편안’과 ‘불편’)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키보드 상에서 왼쪽의 ‘A’키와 오른쪽의 ‘S’키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IAT검사 1에서는 1단계에서 화면 가운데 나오는 자극이 ‘친밀’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왼쪽 키를, ‘실리’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면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했다. 이때 화면에 나오는 자극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규정해 주기 위해 “나와 단짝친구”, “나와 외판원” 과 같은 식으로 제시했다. 2단계에서는 제시된 형용사가 ‘편안’에 속하면 왼쪽 키를 ‘불편’에 속하면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했다. 3단계에서는 앞의 두 범주들을 합쳐서 ‘친밀’이거나 ‘편안’에 속하는 자극들은 왼쪽 키를, ‘실리’이거나 ‘불편’에 속하는 자극들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4단계에서는 ‘편안’과 ‘불편’을 2단계와는 다른 반대쪽 키를 눌러 분류하도록 하였다. 즉 ‘편안’에 속하는 자극은 오른쪽 키를, ‘불편’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눌러 분류하였다. 5단계에서는 ‘친밀’이거나 ‘불편’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를, ‘실리’이거나 ‘편안’에 속하는 자극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따라서 1단계와 2단계, 4단계에서는 각각 20개의 자극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고, 3단계와 5단계에서는 40개의 자극(‘친밀-실리’ 20개와 ‘편안-불편’ 20개)에 대해 판단하였다. 이때 오류를 범하면 빨간 X 표가 화면 가운데 나오고 다시 반응을 하도록 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IAT검사 2도 실시하였다. 실험은 실험 보조원들의 도움에 따라 진행되었다. IAT 반응이 끝난 후 직접질문 및 명시적 검사에 대한 질문지를 시행하였다.

IAT 검사는 연습시행까지 합쳐 평균 20분이 소요되었으며 IAT 검사 실시 후 명시적 검사로서 IAT 직접 질문 및 RISC, SOC개인 효율, SOC 대인통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명

시적 검사에 걸린 시간은 평균 15분이었다.

결과처리:

IAT 검사의 종속 측정치는 각 검사의 3단계와 5단계에서 반응한 반응시간이었다. 개인의 반응은 반응시간과 오류율이 컴퓨터로 자동으로 측정되었으며, 통계처리에서는 반응시간만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오류를 범하면 빨간 X표가 나오고 다시 옳은 반응을 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오류가 반응지연으로 반응시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각 반응 중 각 자극 단어에 대해 3000ms이 넘는 반응과 300ms보다 빠른 반응은 Greenwald 등(2000)의 지침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결과 및 해석

1. 친밀-편안/실리-불편의 연합 강도와 친밀-불편/실리-편안의 연합 강도 차이

일반적으로 친밀한 사람에게서는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단순한 규범적 태도인지 실제 우리의 관계적 자아의 내용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이에 관련된 암묵적 IAT 검사1(친밀과 실리관계에 대한 편안과 불편의 연합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 : 이하 친실편불이라고 칭함)의 반응시간을 분석하였다. 종속측정치는 IAT 검사1의 전체 5단계 중 3단계와 5단계에서 피험자가 보인 반응시간이었다. IAT 친실편불 검사 중 3회기는 친밀-편안/실리-불편의 연합 강도를 나타내며 5회기는 친밀-불편/실리-편안의 연합 강도를 나타낸다. 만

약 3회기의 반응시간이 5회기에 비해 유의하게 짧다면 이는 친밀 대상에 대하여 불편보다는 편안에 강하게 연합되고 실리 대상에 대해서는 불편에 강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표본 t 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 3회기와 5회기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1, 219) = -21.09, p < .01$). 친밀-편안의 반응시간은 친밀-불편의 반응시간에 비해 유의하게 빨랐다. 이는 친밀한 대상에 대해 편안과 관련된 형용사를 빠르게 연합시킨 것을 의미하며 친밀한 관계에 편안 차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친밀한 대상에 대해 편안함을 느끼고 실리적 대상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고정관념이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암묵적 자아 표상의 내용임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2. 명시적 검사의 고저집단의 친밀-편안/실리-불편 연합강도에서의 차이

인간관계에서 친밀 대상에 대해 편안을 연합하고 실리 대상에 대해 불편을 연합하는 것은 관계적 자아와 관련된 자아와 관련된 명시적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과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명시적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관계적 자아와 관련된 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RISC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은 자신을 규정하는데 가까운 타인과의 관계에 의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SOC 개인효율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은 자신이 대인 관계에서 매

우 효율적으로 기능한다고 지각하며, SOC 대인통제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타인을 통제하고 관계의 주도성을 갖고 있다고 지각한다. 명시적 검사를 통해 관계적 자아 특성이 높게 나온 사람과 낮게 나온 사람은 암묵적 IAT검사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RISC, SOC 개인효율, SOC 대인통제 등 관계적 자아와 관련된 명시적 검사에서 상위 25%,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의 IAT 점수만을 따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3단계와 5단계의 반응 시간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조건(3회기 vs, 5회기), 명시적 검사 고저, 피험자의 성별 변인을 포함하여 삼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표 1, 표 2, 표 3은 조건, 각 명시적 검사 고저, 성별에 따른 IAT 검사1의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우선 RICS 고저에 따른 분석을 살펴보자.

표 1 및 RISC고저에 따른 3원변량분석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앞의 t 검증의 결과에서도 밝혀진 바로서 친실편불의 3회기와 5회기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 114)=225.11, p<.01$). 대학생들은 친밀 실리 관계에서 친밀은 편안과 실리는 불편함과 암묵적으로 강하게 연합하고 있다. 대학생의 친밀 관계 대상에 대한 암묵적 표상은 푸근한, 따뜻한, 부담없는, 자연스런, 여유있는, 부드러운, 느긋한, 허물없는, 격식없는, 꾸밈없는 등 편안함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강하게 연합하여 이에 대한 반응시간이 현저하게 짧았다. 반면, 친밀 관계 대상이 부담스러운, 거북한, 긴장되는, 어색한, 의식적인, 부자연스러운, 딱딱한, 억지스런, 조심스런, 신경쓰이는 등 불편함을 나타내는 형용사와는 약하게 연합되어 반응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RISC고저 및 성별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즉 상호의존적 자아 해석 점수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특별히 친밀 대상에 대해 더 편안함을 느끼고 실리 대상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며 남녀 반응의 차이도 없음을 나타낸다. 암묵적 검사에서 나타난 대상에 대한 편안차원의 연합 강도의 차이는 명시적 검사의 고저집단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표 1. 조건, RISC 고저, 성별에 따른 IAT 검사1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ms)

성 별	RISC	친밀-편안/실리-불편	친밀-불편/실리-편안
남성(n=58)	저 (n=30)	990.92 (292.82)	1361.28 (291.40)
	고 (n=28)	1056.32 (267.64)	1412.76 (303.83)
여성(n=60)	저 (n=26)	1004.96 (241.75)	1306.08 (247.85)
	고 (n=34)	948.41 (175.49)	1321.03 (303.31)

표 2. 조건, SOC 대인통제 고저, 성별에 따른 IAT 검사1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ms)

성 별	SOC대인통제	친밀-편안/실리-불편	친밀-불편/실리-편안
남성(n=57)	저 (n=30)	1000.27 (288.57)	1363.79 (326.84)
	고 (n=27)	980.71 (177.30)	1395.14 (254.29)
여성(n=59)	저 (n=29)	979.53 (199.85)	1252.30 (237.90)
	고 (n=30)	965.85 (241.67)	1292.71 (256.32)

않았다.

표 2 및 SOC 대인통제 고저에 따른 삼원변량분석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 112)=198.68$ $p<.01$). SOC 대인통제 및 성별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대인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통제력이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특별히 더 친밀과 편안을 강하게 연합하지 않았으며 남녀의 반응 차이도 없었다. 성별 * 조건의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도 .10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 성차의 경향성만을 보였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남자 대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전반적인 반응시간이 길었을 뿐 아니라 특히 IAT 친실편불의 5회기에서 반응이 느렸다. 즉 남학생은 친밀을 불편과 연합시키는데 여학생에 비해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다.

표 3 및 SOC 개인효율 고저에 따른 삼원변량분석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 106)=194.43$ $p<.01$). SOC 개인효율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개인효율감이 높은 사람이 특별히 더 친밀과 편안을 강하게 연합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성별은 유의도 .10 수준에

서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자 대학생은 여자 학생에 비해 반응시간이 긴 경향을 띠었다.

3. 친밀-진실/실리-거짓의 연합강도와 친밀-거짓/실리-진실의 연합강도 차이

일반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사람들은 진실을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낯선 사람이나 업무와 관련되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보통 처음부터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 보이지 않고 중립적인 모습을 보인다. 때로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하여 자신을 꾸미거나 감추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은 진실성을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느낀다. 이런 느낌이 단순한 규범적 태도인지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적 자아의 내용인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이에 관련된 암묵적 IAT 검사2 (친밀과 실리관계에 대한 진실과 거짓의 연합 정도를 알아보는 검사 : 이하 친실진거라고 칭함)의 반응시간을 분석하였다. IAT 검사2는 친밀-실리 관계에 대한 진실 차

표3. 조건, SOC 개인효율 고저, 성별에 따른 IAT 검사1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ms)

성별	SOC개인효율	친밀-편안/실리-불편	친밀-불편/실리-편안
남성(n=57)	저 (n=25)	1086.47 (319.55)	1368.07 (284.81)
	고 (n=32)	968.93 (228.71)	1349.70 (272.75)
여성(n=53)	저 (n=29)	987.11 (210.86)	1311.98 (322.65)
	고 (n=24)	937.11 (151.96)	1255.43 (178.82)

표 4. 조건, RISC 고저, 성별에 따른 IAT 검사2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ms)

성 별	RISC	친밀-진실/실리-거짓	친밀-거짓/실리-진실
남성(n=55)	저 (n=30)	982.83 (284.85)	1346.12 (363.73)
	고 (n=25)	958.23 (189.71)	1245.34 (179.26)
여성(n=63)	저 (n=29)	1055.09 (242.40)	1388.24 (385.38)
	고 (n=34)	976.52 (163.73)	1338.40 (292.27)

원의 반응을 쥔다. 종속측정치는 IAT 검사2 전체 5단계 중 3단계와 5단계에서 반응한 반응시간이었다. IAT 진실편불 검사 중 3회기는 친밀-진실/실리-거짓의 연합 강도를 나타내며 5회기는 친밀-거짓/실리-진실의 연합 강도를 나타낸다. 만약 3회기의 반응시간이 5회기에 비해 유의하게 짧다면 이는 친밀 대상에 대하여 거짓보다는 진실에 강하게 연합되고 실리 대상에 대해서는 거짓에 강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종속표본 t 검증을 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1, 219) = -19.14, p < .01$). 친밀-진실의 반응시간은 친밀-거짓의 반응시간에 비해 유의하게 빨랐다. 이는 친밀한 대상에 대해 진실과 관련된 형용사를 빠르게 연합시킨 것을 의미하며 친밀한 관계에 진실 차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친밀한 대상에 대해 진실을 느끼고 실리적 대상에 대해 거짓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규범적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암묵적 자아 표상 내용임을 확인해주는 결과이다.

4. 명시적 검사의 고저집단에서의 친밀-진실/실리-거짓의 연합강도 차이

친밀 대상에 대해 진실을 연합하고 실리 대상에 대해 거짓을 연합하는 이와 같은 결

과는 관계적 자아와 관련된 명시적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과 낮은 점수를 받는 사람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이를 위하여 명시적 검사에서 상위 25%,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의 IAT 점수만을 따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3단계와 5단계의 반응 시간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조건(3회기 vs, 5회기), 명시적 검사 고저, 피험자의 성별 변인을 포함하여 삼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우선, 표 4 및 RISC고저에 따른 삼원변량분석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 114) = 72.56, p < .01$). 대학생들은 친밀 실리 관계에서 친밀은 진실과 실리는 거짓과 암묵적으로 강하게 연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학생의 친밀 관계 대상에 대한 암묵적 표상은 진짜의,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참된, 꾸밈없는, 본심의, 진심의, 드러내는, 마음속의, 진솔한 등 진실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강하게 연합하여 이에 대한 반응시간이 현저하게 짧았다. 반면 친밀 관계 대상이 가짜의, 내숭떠는, 가식적인, 속이는, ~척하는, 꾸미는, 감추는, 숨기는, 위선적인, 가면 쓴 등 거짓을 나타내는 형용사와는 약하게 연합되어 반응시간이 길었다. 그러나 RISC고저 및 성별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즉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점수가 높은 사람이 특별히 친밀 대상에 대해 더 진실을 느끼고 실리 대상에 대해 거짓을 느끼는 것

표 5. 조건, SOC 대인통제 고저, 성별에 따른 IAT 검사2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ms)

성 별	SOC대인통제	친밀-진실/실리-거짓	친밀-거짓/실리-진실
남성(n=59)	저 (n=31)	984.35 (277.30)	1324.56 (400.22)
	고 (n=28)	993.96 (250.50)	1361.26 (338.72)
여성(n=59)	저 (n=29)	919.95 (180.33)	1176.67 (214.89)
	고 (n=30)	981.32 (158.85)	1282.95 (262.36)

표 6. 조건, SOC 개인효율 고저, 성별에 따른 IAT 검사2 반응시간 평균과 표준편차 (ms)

성 별	SOC개인효율	친밀-진실/실리-거짓	친밀-거짓/실리-진실
남성(n=58)	저 (n=25)	1044.91 (293.24)	1328.07 (377.09)
	고 (n=33)	954.14 (180.40)	1283.63 (296.90)
여성(n=53)	저 (n=29)	929.80 (148.30)	1245.74 (254.05)
	고 (n=24)	963.23 (181.13)	1271.26 (271.10)

은 아니며 남녀 반응의 차이도 없었다.

표 5 및 SOC 대인통제 고저에 따른 삼원변량분석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 114)=184.49$ $p<.01$). SOC 대인통제 고저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대인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통제력이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 비해 특별히 더 친밀과 진실을 강하게 연합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성별 효과는 유의도 .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통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반응시간이 느린 경향을 나타냈다.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6 및 SOC 개인효율 고저에 따른 삼원변량분석 결과,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 107)=210.31$ $p<.01$) 그러나, SOC 개인효율 주효과 및 성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개인효율감이 높은 사람이 특별히 더 친밀과 진실을 강하게 연합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남녀의 차이도 없었다.

5. 친밀 및 실리 대상에 대한 암묵적 검사와 명시적 검사 및 직접질문과의 관련성

다음 표 7은 암묵적 검사와 명시적 검사 및 직접질문과의 상관 분석 결과이다.

표 7에서와 같이 친밀-실리 표상에 대한 암묵적 검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즉 친실편불 연합과 친실진거 연합과의 상관이 $r=.38$ 로 유의하였다. 반면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묻는 직접질문 및 명시적 검사인 RISC, SOC 개인효율, SOC 대인통제와 암묵적 검사와는 상관이 낮았다. 이는 IAT와 직접질문 및 명시적 검사가 각기 다른 의식의 차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며, IAT는 의식적인 통제의 과정을 겪지 않으므로 명시적 검사와 상관이 낮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RISC점수는 직접질문에서 실리적 관계인 실리/진실, 실리/편안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친밀한 관계의 친밀/진실과 친밀/편안과 상관이 있었다. 즉 RISC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직접질문 친밀-편안, 친밀-진실 점수도 높았다. 상관의 정도는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친밀/진실, 친밀/편안 모두에서 더 높았다. 이는 연구문제2과 연구문제4의 결과와 대비된다. 즉 연구문제 2, 4의 결과에 따르면, 친밀-편안 연합 및 친밀-진실 연합강도에 RISC의 고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표7에서와 같이 RISC 고저는 명시적 질문인 직접질문과는 상관이 높았다. 이는 관계적 자아를 재는 명시적 검사와 친밀/실리관계에 대한 직접질문과의 관련성을 드러내며 암묵적 검사와 명시적 검사와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표 7에서 암묵적 검사의 결과는 명시적 검사와 관련이 적었다. 또한 IAT 암묵적 검사와

표 7. 암묵적 검사와 명시적 검사 및 직접질문과의 상관

	친밀-실리 /편안차원	친밀-실리 /진실차원	RISC	SOC 개인효율	SOC 대인통제	실리/진실 직접질문	친밀/진실 직접질문	실리/편안 직접질문	친밀/편안 직접질문
친밀-실리 /편안차원	1								
친밀-실리 /진실차원	.38**	1							
RISC	.03	-.02	1						
SOC 개인효율	.08	.07	.17**	1					
SOC 대인통제	.08	.07	.13	.45**	1				
실리/진실 직접질문	.05	-.02	.06	-.05	.04	1			
친밀/진실 직접질문	-.03	.02	.30**	.39**	.36**	.05	1		
실리/편안 직접질문	.06	-.04	-.04	.19**	.01	.36**	-.21**	1	
친밀/편안 직접질문	-.04	.04	.30**	.43**	.35**	.01	.71**	-.17**	1

p<.05 * p<.01**

셀에서 첫째 줄은 전체상관, 둘째 줄은 남학생 상관, 셋째 줄은 여학생 상관

IAT 직접질문간의 관련성도 낮았다. 반면, IAT 표상 내용을 명시적으로 묻는 직접질문과 대인관계 척도는 관련성을 보여, 친밀-진실 직접질문은 SOC개인효율, SOC대인통제, RISC의 순서로 관련성을 보였으며, 친밀-편안 직접질문은 SOC개인효율, SOC대인통제, RISC의 순서로 관련성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생은 암묵적 IAT검사에서 친밀에 대해서는 편안을,

실리에 대해서는 불편을 강하게 연합하고 친밀에 대해서는 진실을, 실리에 대해서는 거짓을 강하게 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실리 표상에 대한 IAT 결과는 암묵적 검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반면,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묻는 직접질문 및 명시적 검사인 RISC, SOC개인효율, SOC대인통제와 상관이 거의 없었다. 이는 IAT와 직접질문 및 명시적 검사가 각기 다른 의식의 차원을 바

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IAT 표상내용을 명시적으로 묻는 직접질문과 명시적 검사는 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인간관계에 큰 변화를 보이는 대학생들의 관계적 자아의 측면을 친밀 및 실리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암묵적 검사인 IAT를 통해 친밀 및 실리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명시적 검사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를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편안 및 진실 차원의 자극특성과 암묵적 표상

본 연구에서 대학생은 암묵적 검사에서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편안을, 실리적 관계에 대해서는 불편을 강하게 연합하고 친밀에 대해서는 진실을, 실리에 대해서는 거짓을 강하게 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친밀관계나 실리관계에 대한 대학생의 암묵적 표상은 인간관계에 대한 의식적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친밀관계나 실리관계에서의 편안차원과 진실차원의 표상 내용은 의식적 수준과 암묵적 수준에서 다르지 않았다. 흔히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편안함을 느끼고 진실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친밀관계에 대한 의식은 다분히 규범적 태도를 반영하며 사회화의 내용으로서 인간관계에 대한 적응적 태도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친밀관계에서의 이러한 태도는 암묵적 수준에서도 동일하였다. 즉 대학생들은 특별한 의식적인 통제를 없이도 친밀한

대상에게는 편안함과 진실함을 강하게 연합하였다. 실리관계에 대한 불편과 거짓 연합 역시 의식적 수준과 암묵적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친밀관계 및 실리관계에 대한 편안과 진실차원에서 암묵적 표상내용과 의식적 표상 내용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관계특성과 자극특성이 인간관계에 대한 규범적 내용 및 오랜 학습의 내용과 일치하는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자기 제시는 처음에는 다소 의식적인 주의와 통제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 무의식적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는 Schlenker(2003)의 지적처럼, 오랜 시간 인간관계에서의 경험을 통해 친밀관계를 편안과 진실과 강하게 연합하는 것이 자동화, 무의식화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관계 및 실리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의 내용과 명시적 표상의 내용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편안과 진실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을 제시하였을 때 암묵적 표상과 의식적 표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에 대해 Locke(2003)의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

Locke(2003)는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위차원을 강조한 반면 친밀 차원을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친밀감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친밀 대상과의 수평적 비교에서 더 큰 정서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친밀관계 및 실리관계에 대한 경쟁 차원의 연합정도를 알아보거나, 사회비교 차원의 연합정도를 알아본다면 다른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흔히 친밀 관계의 대상에 대해서는 편안과 진실을 경험하지만 만약 그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매우 복잡한 심리적 내용을 경험하게 된다. 실리관계의 대상에게 경쟁적 특성을 연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친밀한 관계의 대상에게 경쟁적 특성을 연합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억제하며 따라서 명시적 검사에서는 친밀 대상에 대한 경쟁적 특성을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암묵적 검사에서는 의식적 억제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친밀 대상에 대하여 경쟁을 연합할 수 있다. 사회적 비교 특성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실리적 관계에 있는 대상과의 사회적 비교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반면, 친밀 관계에 있는 대상과 자신이 비교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겸손과 상대방 배려를 규범적 태도로 보고 명시적 검사에서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반면, 암묵적 검사에서는 친밀 대상과의 사회적 비교가 더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친밀관계 및 실리관계의 자극특성을 달리하면 명시적 검사와 암묵적 검사의 결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친밀관계와 실리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표상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본적인 심리적 내용인 편안차원과 진실차원을 알아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리적 내용의 연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암묵적 검사와 명시적 검사간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발달적 맥락에서 볼 때, 대학생은 지금까지 비교적 동질적인 발달경로를 밟아왔던 친구들과 이제부터는 진학, 유학, 취업, 입대, 결혼 등 사실상 이질적인 발달경로를 밟

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적 비교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친밀관계에서의 사회적 비교를 통해 인간관계의 암묵적 표상을 알아볼 수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실리적인 대상으로 주어진 직장동료, 외판원, 고객, 보험설계사, 동업자, 수업조교, 행정직원, 의사, 팀원, 영업사원에 대하여 대학생은 불편과 거짓을 강하게 연합하였다. 목적을 갖고 만나는 실리적 인간관계에 대하여 종종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목표 외에도 그 대상 자체에 대해 느끼는 편안함과 진실성을 보고하기도 하지만 이는 다분히 의식적 표상의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암묵적 수준에서는 실리적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해 대학생은 불편함과 거짓을 강하게 연합함으로써 실리관계에 대한 편안과 진실을 보고하는 것이 다분히 의식적인 통제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반응이 실리적 인간관계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대학생의 발달적 맥락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반응인지 다른 연령층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인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만으로는 밝혀지 못하였다. 이는 추후 연구에서 밝혀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암묵적 검사의 유용성

Greenwald 등(2000)은 IAT 검사는 첫째, 자기-표상을 인위적으로 꾸며 제시할 수 없으며 둘째, 의식적 통찰이나 내성을 통해 연합강도가 달라지지 않으며, 셋째,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중요한 범주 예를 들어, 연령, 성, 인종, 직업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여 연구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IAT 검사의 유용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암묵적검사의 유용성은 본 연구에서도 일부 검증되었다.

친밀-실리 관계에 대한 암묵적 검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반면,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묻는 직접질문 및 명시적 검사인 RISC, SOC 개인효율, SOC 대인통제와 암묵적 검사와는 상관이 낮았다. 즉 IAT 검사1과 IAT 검사2의 상관은 높았으나, IAT 검사1과 이에 대한 직접질문 및 IAT 검사2와 이에 대한 직접질문은 상관이 낮았다. 또한 IAT 검사와 RISC, SOC 개인효율, SOC 대인통제와의 상관도 낮았다. 암묵적 검사와 명시적 검사간의 반응 차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로서 IAT와 직접질문 및 명시적 검사가 각기 다른 의식의 차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IAT 표상 내용을 명시적으로 묻는 직접질문과 명시적 검사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의 자아 관련 연구에서 명시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여지를 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들은 피험자의 자기 제시, 규범적 태도, 고정관념 등에 의해 실제의 자아가 감추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연구 문제들을 암묵적 검사를 통해 측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암묵적 태도 검사는 감추어지고 왜곡될 수 있는 태도 및 가치, 자아의 내용들을 채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개인특성을 채는 명시적 검사의 고저집단에 따른 주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즉 IAT 검사의 3회기와 5회기의 반응시간이 상호의존적 자아해

석의 고저집단, 개인 효율감 고저집단 및 대인통제감의 고저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명시적으로 파악한 관계적 자아와 관련된 개인적 특성이 암묵적 검사의 반응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명시적 검사만으로 태도 및 가치, 자아의 내용을 채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밀-실리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에서의 성차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p 값 .10의 수준에서 SOC 검사와 관련되어 성차의 경향성만 나타났다. 즉 IAT 검사 1과 IAT 검사 2 모두에서 남자 대학생은 여자 대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반응시간이 느렸다. 이는 남학생은 친밀-편안 연합의 정도 뿐 아니라 실리-불편의 연합강도 역시 약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간관계에 덜 민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은 발달과정에서 인간관계 특히 친밀한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격려 받고 이를 자연스럽게 표출한 반면, 남학생은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덜 격려 받았을 가능성에서 기인한다. 이런 사회화의 결과 외에도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인간관계 자체에 관심을 더 갖고 이를 좀 더 정교하게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Cross 등(2000)은 RISC의 고저집단에 따른 특성을 설명하며 이에 따른 성차를 설명한 바 있다. 여성은 관계를 맺고 타인과 친

밀해지고자 하는 욕구와 필요성을 중시하도록 사회화되므로 남성에 비해 “타인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정의되는 자기 개념”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RISC의 고저집단의 주효과도 없었으며, 남녀별로 보았을 때에도 RISC 고저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Cross 등(2002) 연구는 남녀 차이보다는 RISC 고-저 집단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관계적인 경향성의 문제이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Cross 등(2002)의 RISC 점수를 관계와 개인에 관한 표상과 관련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과 ‘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을 알아본 Cross 등(2002), 방희정 등(2005)의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Cross 등(2002), 방희정 등(2005)의 연구에서는 ‘개인’과 ‘관계’에 대한 표상이 RISC 고저집단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과 ‘관계’라는 개념이 RISC의 검사 성격과 좀 더 일치하는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표상임을 시사한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인간관계 중 기본적인면서도 대응되는 친밀관계 및 실리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Cross 등(2002), 방희정 등(2005)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RISC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는 연구 중 구체적인 인간관계로 들어갔을 때 RISC의 고저에 따른 반응은 서로 상이하다. 이는 RISC가 일반적인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의 척도는 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정된 관계에서는 그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제한점 때문에 관계적 자아에 대

한 새로운 검사도구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별되는 인간관계인 친밀관계와 실리관계에 대한 암묵적 표상을 IAT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명시적 검사와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친밀관계와 실리관계가 편안과 진실차원에서 서로 다른 표상 내용으로 연합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암묵적 검사와 명시적 검사의 괴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암묵적 검사의 유용함을 검토하였다. 앞으로 암묵적 검사를 통하여 인간관계의 보다 다양한 차원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2004).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학지사.
- 방희정,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2005). 한국 남녀 대학생의 ‘개인’과 ‘관계’의 암묵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0권 2호, 189-210.
- Aron, A., Aron, E. B., & Smollen, D. (1992). Inclusion of other scale and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596-612.
- Bakan, D.(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Isolation and communion in Western man*. Boston : Bacon.
- Bandura, A. (1996). A sociocognitive view on shaping the future. In KPA(Ed.), *Mind, machine and environment*. Seoul : KPA
- Baldwin, M. W.(1992). Relational schemas and the processing of social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2(3), 461-484.
- Baumeister, R., & Sommer, K.(1997). What do men want? Gender differences and two spheres of belongingness: Comment on Cross and Madson (1997). *Psychological Bulletin*, 122(1), 38-44.

- Bornstein M. H., & Lamb, M. E. (Eds.)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 An Advanced Textbook*.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aspi, A. (1998). Personality development across the life course. In D. William et a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pp 311-388). New York : John Wiley & Sons.
- Clark, M. S. (1985). Implications of relationship type for understanding comparability. In W. Ickes (Ed.), *Compatible and incompatible relationships*. New York : Basic Books.
- Collins, W. A. & Madsen, S. (2002). Relational roots of romance : Beyond “chumship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Adolescence, New Orleans.
- Cross, S. E., Bacon, P. L., & Morris, M. L. (2000). The relational-independent self-construct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91-808.
- Cross, S. E., Morris, M. L., & Gore, J. S. (2002). Thinking about oneself and others: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3), 399-418.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Fazio, R., Sanbonmatsu, D., Powell, M., & Kardes, F. (1986). On the automatic activation of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29-238.
- Fiske, A. P. (1991). *Structures of social life : The four elementary forms of human relations*. New York : The Free Press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 Press.
- Greenwald, A.,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 1022-1038.
- Greenwald, A., Banaji, M., Rudman, L., Farnham, S., Nosek, B., & Mellott, D.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1), 3-25.
- Greenwald, A. G., Banaji, M., R., & Nosek, B., A.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 I. An improved Scoring Syst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5(2), 197-216.
- Harter, S. (1998). The Development of Self-Representations. In D. William et a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pp. 553-620). New York : John Wiley & Sons.
- Harter, S. (1999). *The constructure of self*. New York : Guilford.
- Harter, S. & Lee, L. (1989). Manifestations of true and false selves in adolescenc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RCD, Kansas City.
- Higgins, E. T. (1996). Knowledge activation: Accessibility, applicability, and salience. In E. T. Higgins & A. W. Kruglanski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pp. 133-168), NY: Guilford Press.
- Hstings, C., T & James, M. (2001). Self-concept differentiation across the adult life span. *Psychology and Aging*. 16(4). 643-654.
- Kaplan, A., & Sedney, M. (1989). (김테린, 조혜자, 이선자 역). *성의 심리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Kim, Do-Yeong (2001). Voluntary controllability of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Unpublished manuscript. Univ. of Washington, Seattle, WA.
- Locke, K. D. (2003). Status and solidarity in social comparison: Agentive and communal values and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5(2), 197-216.

- McConnell, A., Renaud, J., Dean, K., Green, S., Lamoreaux, M., Hall, C., & Rydell, R.(2005). Whose self is it anyway? Self-aspect control moderates the relation between self-complexity and well-being. *Journal of Expeimental Social Psychology* 41. 1-18.
- Paulhus, D (1983). Sphere-specific measures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53-1268.
- Paulhus, D., Graf, P., & van Selst, M.(1989). Attentional load increases the positivity of self-presentation. *Social Cognition*, 7, 389-400.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 Press.
- Rosenberg, S.(1997). Multiplicity of selves. In R.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 NY: Oxford Press.
- Rubin, K., Bukowski, W., & J. Parker(1998). Peer interaction, relations, and groups. In D. William et al.(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3*. (pp. 619-700). New York : John Wiley & Sons.
- Schlenker, B.(2003). Self-Presentation, In M. Leary, & J.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pp. 492-518).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Sedikides, C., & Brewer, M.(2001).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Ann Arbor, MI: Psychological Press.
- Suh, E.(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378-1391.

1차 원고 접수 : 2006. 1. 14

수정 원고 접수 : 2006. 2. 20

최종게재결정 : 2006. 2. 21

Implicit Representations of 'Close Relationship' and 'Instrumental Relationship' in College Students

Sook Ja Cho Hee Jeong Bang Hyeja Cho Hyun Jeong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implicit representations of 'Close relationship' and 'Instrumental relationship' in College Students. Participants(220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an explicit questionnaire, RISC(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SOC(Spheres of Control), and to respond 2 sorts of IAT(Implicit Association Test). The results were summed up as follows: Implicit representation of 'close relationship' is associated with 'comfort' and 'authentic' dimensions, whereas 'instrumental relationship' is associated with 'discomfort' and 'false' dimensions. IAT results were not correlated with explicit measures and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ISC high and low groups and between SOC high and low group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development of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and usefulness of IAT.

Keywords: close relationship, instrumental relationship, implicit representation, explicit test